

근면과 다산을 뜻하는 알찬 쥐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08년 무자(戊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근면과 다산을 뜻하는 쥐의 해라고 합니다만, 회원 동지 여러분 모두가 보다 발전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연초부터 10년만의 정권 교체다, 정부조직 개편이다 하면서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실용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사회 변화를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 의욕은 좋지만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념과 철학, 정치적 성향, 식성까지 제각각인 사람들에게 대해 일일이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처럼, 과거만 생각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자세로는 미래를 맞이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150년 전, 국제정세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외세의 침략에 무너진 우리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잖습니까? 새로운 농업정책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대로 기여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농인이 앞장서서 변화하고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네 삶 농촌 현장에서, 각 지역과 중앙 농정의 틀에서, 아니 저와 우리 모두의 가슴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다시금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농인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초 임직원 워크샵과 1차 이사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 13대 집행부는 마지막 2년차를 맞이하여, 더욱 새롭게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자란 저희 집행부와 중앙 사무총국이지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 올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지나온 길을 뿌듯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근면과 다산의 쥐의 해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